

人文論叢

82권 3호

2025년 8월

일반 논문



# 나시르 앳딘 투시와 오컬트 과학\*

이주연\*\*

**초록** 본 연구는 13세기 이슬람권의 저명한 천문학자 나시르 앳딘 투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점성술 내용을 담은 시 『투시의 택일』의 사본 현황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당대의 역사적 기록 및 철학적·사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나시르 앳딘 투시와 점성술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람권의 점성술은 이슬람 창시 이전 중근동과 주변 지역 문명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이슬람 창시 후 여러 무슬림 법학자와 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때 법학자의 비판은 주로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는 점이었고, 철학자의 비판은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이 파악하려 한다는 점이였다. 이에 대해 점성가는 신학적인 비판을 회피하거나 과거를 운색하는 한편, 철학자의 비판에 대해서는 점성술 이론을 세련되게 발전시킴으로써 대응했다.

『투시의 택일』은 전 세계에 30여 개의 사본이 존재하며, 많은 사본에서 나시르 투시의 작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나시르 앳딘 투시는 점성술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을까? 맘룩술탄국의 합동전기에서는 그를 점성가라고 못 박고 있는데, 맘룩술탄국은 몽골제국의 적국이었으므로 적국의 유력 학자이자 이스마일리 교단 출신인 투시를 부정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홀레구 울루스의 기록에서도 그는 점성가적인 면모를 보인다. 더 나아가 그가 번역한 유사-포톨레미 작품인 『열매의 책』에서 그는 헬레니즘 철학이론을 바탕으로 별의 상태가 세계 발전의 조건이며, 별에 관한 지식이 세계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점성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투시의 시대에는 오컬트 과학에 대한 고위층과 대중의 후원이 이슬람 법학이나 철학을 압도했는데, 이에 저항하는 반오컬트 운동이 발생했다. 이때 반오컬트 측에서 나시르

\* 본 연구는 2024년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강사

앗딘 투시를 오컬트 과학 지식인의 전형으로 여겼는데, 이는 그가 점성술을 비롯하여 어 깨보기, 모래짐과 같은 몇몇 오컬트 과학 관련 저서를 작성할 정도로 오컬트 과학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오컬트 과학, 점성술, 나시르 앗딘 투시, 택일, 헬레니즘 철학, 상응(Munāsiba)

## 1. 서론

달이 양자리로 다가올 때:

매달 지고하신 신께서 이름을 붙이신다.

친체인 달이 화성의 집, 즉 양자리에 (있으면)

여행하기에도, 아미르의 얼굴을 보기에도 좋다.

비단옷을 입는 것, 그리고 화살로 사냥하는 것,

비록 일을 시작하거나, 피를 뽑는 데는 좋으나,

건물을 짓기에는 좋지 않다, 특히 무언가를 심는 것은<sup>1</sup>

위의 문구는 달이 특정 별자리에 있을 때, 사람에게 어떤 행동이 이롭거나 해로움을 알려주는 이슬람권의 전형적인 별자리 점성술 시의 일부이다. 시 형태로 되어 있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마스나비 운율 속에서 ‘택일’(Ikhtiyārāt) 점성학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런데 이 시의 주인공이 13세기 이슬람권

1 Anonymous (1384Sh./2005-6), *Tanklūshā* (Ed. by Raḥīm Rizāzāda Malak), Tehran: Mīrāth Maktūb, p. 162.

2 이 작품은 별도의 제목이 없으며, 다만 여러 사본이나 카탈로그에서 『택일』(Ikhtiyārāt)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Ikhtiyārāt라는 단어가 택일이라는 뜻을 지닌 보통명사고, 이 제목을 지닌 다른 작품도 본문에 등장하므로 이 책에서는 『투시의 택일』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의 저명한 천문학자, 나시르 앓딘 투시(Naṣīr al-Dīn Tūsī, 1201~1274)라는 점은 많은 사람의 의구심을 자아낸다. 이란 동북부의 도시 투스(Tūs)의 12대 이맘과 시아파 법학자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종교법 및 과학과 철학 교육을 받았던 나시르 앓딘 투시는 그 과정에서 시아파 중 소수 종파인 이스마일리의 교리에 매료되었고, 학습을 마친 30대 초에 투스 부근에 있던 쿠히스탄의 이스마일리 총독 무타삼 나시르 앓딘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 이스마일리의 본거지인 알라무트(Alamūt)로 들어갔다가, 1256년 알라무트를 점령한 몽골제국 홀레구 칸에게 발탁되어 홀레구 울루스에 입성하게 된다.<sup>3</sup> 그리고 홀레구 칸의 후원을 받아 말라가 천문대를 세웠는데, 이곳에 머무르던 투시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천문 관련 논문과 저서는 당대 이슬람 과학의 정수이자 향후 유럽의 천문학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특히 프톨레미의 우주 모델에서 보이는 오류를 보완할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발전에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근대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천문학적 연구 성과를 진행했던 투시가 점성술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점성술과 관련된 시 작품을 남겼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많은 사본에서 나시르 앓딘 투시를 저자로 지목함에도 불구하고, 학자 중에는 이 작품을 투시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투시의 택일』의 사본 현황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시르 앓딘 투시와 점성술에 관한 역사적 기록 및 당대 철학·사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나시르 앓딘 투시와 점성술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George E. Lane (2018), "TŪSĪ, NAṢĪR-AL-DĪ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25.5.17.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tusi-nasir-al-din-bio>

## 2. 이슬람 점성술의 발전과 그 반응

### 2.1. 이슬람 점성술의 시작

이슬람 점성술은 이슬람권에서 발전한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이전 중근동 일대 고대 문명의 다양한 전통을 이어받아 성립되었다. 벤저민 다이크(Benjamin N. Dykes)는 8세기 이슬람 중세 점성술의 발전을 개막한 인물로 알려진 마샬라(Māshā'allah)와 사흘 빈 비슈르(Sahl bin Bishir)라는 두 유대계 페르시아인 점성가의 저서를 번역·분석한 그의 책에서, 이들이 이용한 고대의 전통 자료를 크게 네 가지로 압축했다. 그것은 1) 프톨레미(Ptolemy)의 테트라비블로스(Tetrabiblos), 2) 도로테우스(Doroteus de Sidon)의 카르멘(Carmen), 3) 페르시아계의 정치점성술 관련 저서들, 4) 페르시아계의 순간 점성술 관련 저서가 그것으로, 자료 수는 많지 않으나 그 안에 고대 이집트부터 메소포타미아, 헬레니즘, 페르시아, 인도 점성술이 집약되어 있다.<sup>4</sup> 프톨레미와 도로테우스는 모두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는데, 이곳은 헬레니즘과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의 전통이 뒤섞여 독특한 점성술을 꽃피웠던 곳이다. 여기에 페르시아 문화가 더해지고, 만다이즘이나 사비안과 같은 중동 내의 독특한 소수 신비주의 전통까지 더해져 8~9세기에 이슬람 점성술이 성립되었던 것이다. 당시 점성술 이론을 구축했던 점성가들은 본래 이슬람 이전의 중동과 그 주변 문화권의 학문에 정통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압바스 칼리프조 초기의 ‘번역운동’으로 대표되는 학문 부흥 및 발전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후한 대접을 받으며 왕가와 고위 가문의 어용 점성가로 활약했다.

이슬람 초기의 황금시대를 개막했던 압바스 칼리프조의 초기 칼리프들은 우마이야 칼리프조를 제거하고 ‘무함마드 가문의 칼리프’로 등극하기 위

4 Benjamin N. Dykes (2008), *Works of Sahl & Māshā'allā*, Cazimi Press, p. ix.

해 압바스 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들의 성공을 점치는 여러 점성가를 대동했다. 그들은 반란 세력에 대한 승리와 반란 수장의 죽음을 예측하는 한편, 수도로 정한 바그다드의 행운을 위해 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는 정확한 시점을 점성학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sup>5</sup> 점성가에 대한 역대 이슬람 군주들의 신뢰는 시대마다 혹은 군주 개인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적어도 그들이 군주의 근신 집단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원이었던 것은 전근대 내내 변하지 않았다.<sup>6</sup> 물론 궁정에서만 점성술이 유행했던 것은 아닌데, 점성술에 비판적이었던 이슬람 지식인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점성술사들의 속임수에 빠져있음을 개탄했다.<sup>7</sup> 이븐 할둔이 『무카디마』에서 학문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학문을 소개할 때 유독 점성술의 무용성을 강조하고 그 학문에 매료된 이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그가 살았던 14세기 북아프리카 이슬람 사회에서 점성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방증한다. 점성술의 중요성은 이슬람 문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수사가 매우 화려한 것으로 알려진 페르시아 문학의 보조관념으로 점성술의 전문 개념이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슬람 점성술은 크게 자연 점성술과 판단 점성술로 나뉘는데, 자연 점

- 
- 5 Sean W. Anthony (2013), "NAWBAKTI FAMILY",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25.5.17. <https://www.iranicaonline.org/articles/nawbakti-family/>
- 6 점성술에 관한 데이비드 핑그리의 개괄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8세기부터 14세기까지 주요 점성술 저작을 남긴 점성가는 여러 이슬람 정권의 점성가였다[David Pingree (1990), "Astrology", *The Cambridge History of Arabic Literature: Religion, Learning, and Science in the 'Abbasid Period* (Ed. by M. J. L. Young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0-300]. 본문에서 다룰 파티마조, 홀레구 울루스, 티무르조에도 술탄의 근신으로 점성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스만의 궁정 점성가에 관해서는 최근에 발간된 A. Tunç Şen (2025)의 저서 *Forgotten Experts: Astrologers, Science, and Authority in the Ottoman Empire, 1450-1600* 참조.
- 7 George Saliba (2004), "The Role of the Astrologer in Medieval Islamic Society", *Magic and Divination in Early Islam* (Ed. by Savage-Smith, Emilie), Ashgate Publishing Limited, p. 357.

성술(Natural Astrology)은 천체가 지구상의 자연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점성술로, 천궁도(Horoscope)와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사용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점성술이다. 그 방법은 특정 천체가 달의 28~36개 저택(Manājil al-Qamar)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사건을 예언하거나, 흔하지 않은 자연재해를 이용하여 사건을 예언하는 방식이다. 한편 판단 점성술(Judicial Astrology)은 천체가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점성술로, 점성가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천궁도와 정교한 수학적 계산, 천문관측 등을 통해 점을 치게 된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탄생일의 천궁도를 이용하여 운수를 점치는 출생 점성술, 국가의 건국일을 중심으로 국가의 운명을 점치는 정치 점성술, 특정 날의 천궁도를 이용하여 특정 행동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선택 점성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문한 순간의 천궁도를 이용하는 순간 점성술(Horary Astrology) 등이 있다.<sup>8</sup> 본래 점성술은 국가의 운명을 점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때 활용되던 기술이었으나, 점차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점성술에 대한 믿음과 접근성이 확산되자, 고도의 지식 없이 간단한 기술만 가지고 일반인들의 앞날을 점치거나, 질병에 약을 제공하거나, 중요한 행사의 날짜를 선택하는 거리의 점성술사들이 왕실의 고위 학자였던 점성가들과 공존하게 되었다.

## 2.2. 점성술에 대한 이슬람권의 다양한 입장

1절에서 점성술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았는데, 이 다양한 분야의 공통적인 전제는 별의 위치와 움직임, 그리고 여러 천체 간의 관계가 인간사에 ‘알 수 없는’, ‘숨겨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범

8 Emilie Savage-Smith Ed. (2004), *Magic and Divination in Early Isl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p. xxxvii.

인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힘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오컬트 과학, 이슬람권의 용어로는 ‘숨겨진 과학’(‘Ulūm-i Ghaiba, ‘Ulūm-i Khafīyya)이라 부른다.<sup>9</sup> 그중에서도 점성술은 ‘별에 대한 과학’(‘Ulūm-i Hay‘at, 혹은 ‘Ulūm-i Ahkām-i Nujūm)이라 부르며, 수학적·기하학적 규칙에 의거하여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천문학(‘Ulūm-i Nujūm)과는 구분된다.

점성술은 다른 오컬트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권 여러 분야의 학자와 지식인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 비판의 핵심은 “신 외에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al-Ghayb)에 대해 아는 자 없으며, 또한 죽은 후 그들이 언제 부활하는지 아는 자 없다.”는 것이다.<sup>10</sup>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란 신만이 알 수 있는 지식으로 시간에 관한 지식, 비를 비롯한 기상현상에 대한 지식, 자궁에 있는 이에 관한 지식, 미래에 누군가가 하게 될 일과 죽을 곳 등, 자연과 인간의 미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sup>11</sup> 미래는 신밖에 알지 못하는데, 신이 아닌 자들이 점술을 통해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다. 일부 하디스는 점술사를 정확히 지목하는데, “점술사(Araf)<sup>12</sup>를 만나 무엇인가 물어보는 자의 기도는 40일 밤낮 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sup>13</sup> “누군가 점술사에 의지하여 그가 말하는 바를 믿는 자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sup>14</sup> 등의 문구가 있다. 이처럼 이슬람 교리에서 점술사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의 열쇠는 신과 함께 있으니 그를 제외하면 누구

9 이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이 ‘명백한 과학’(‘Ulūm-i Daqīqa)으로, 영어의 Exact Science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10 Quran, Sūra al-Namul: 65.

11 Quran, Sūra al-Luqman: 34.

12 이 단어는 점성술사를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3 Hadith, Sahih Muslim: 2230.

14 Hadith, Sunan Abi Dawud: 3904.

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15</sup> 이처럼 쿠란과 하디스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없다고 단언했으므로, 교조적인 법학자 집단인 올라마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에 대해 배타적이었다. 이는 점성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 학문이 발전하면서, 점성술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변화가 생겼다. 점성술을 비판하는 학자 중에 이슬람의 전통적 교리를 중시하는 올라마 외에, 헬레니즘 및 여타 고대의 외래 문명의 영향을 받아 이성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탐구했던 철학자(Filsūf)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비판의 초점은 ‘점술사들은 세상의 여러 사건의 원인이 별에 있다고 여긴다’에 맞춰져 있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올라마들의 입장과는 근소하게 다른데, 쿠란이나 하디스가 비판한 것은 점술사가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였지만, 이 학자들의 비판은 점술사가 ‘신이 아닌 별을 신봉’하는 것이었다. 이는 유일신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슬람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최고의 철학자로 알려진 이븐 시나(Ibn Sīnā)는 “별에 대한 믿음은 예언자가, 그의 사하바<sup>16</sup>들이 피하기를 바랐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sup>17</sup> 이는 별이 자연과 인간 세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원인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븐 시나가 점술사에게 ‘별을 신봉’한다는 혐의를 씌워 비판한 이유는, 그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 또한, 천체의 움직임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이러한 관점은 올라마

15 Quran, Sūra al-An‘ām: 59.

16 동료, 동반자라는 뜻으로 예언자 무함마드 생전에 그와 함께하며 이슬람 초기공동체를 구축했던 집단을 지칭한다.

17 Aydin Sayili (1988), *The Observatory in Islam and its place in the General*, Türk Tarih Kurumu Basimevi, p. 31.

18 이 관점은 이슬람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신플라톤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신플라톤주의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3세기의 플로티누스(Plotinus)는 천체가 지상에 호의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별 외에 지상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대상들도 많

들의 신학적 입장과는 다른 관점인데, 이 철학자들은 점성술의 이론적 근거나 가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sup>19</sup> 점성술에 과학적 기반이 없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븐 시나조차도 천체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다만 그것이 얼마나 일관적이고, 눈에 띄며, 예측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던 것이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성가들은 별의 영향을 과도하게 신봉하니, 결국은 신 대신 별을 신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천체의 움직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점은,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점점 무슬림 학자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예를 들어 11세기 이스마일리 선교사였던 나시르 쿠스라우(Nāṣir Khusraw)는 3년간의 이집트 생활 및 메카 순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스라(Basra)에서 바다

---

으며, 같은 시기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같은 운명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성이 예측의 목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점성사들처럼 행성의 움직임을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우주는 수많은 존재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유기체이므로 한 사건의 이유를 인간이 푸는 것이 불가능하며 초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Marilynn Lawrence, 「Hellenistic Astrology」,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25.1.19. <https://iep.utm.edu/hellenistic-astrology/#H7>). 천체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일정 부분 받은 이슬람권의 여러 철학자들, 이븐 시나, 알 비루니(al-Bīrūnī), 알파라비(al-Fārābī)에게도 보이는 관점이다.

19 Aydin Sayili (1988), p. 33.

20 이와 비슷한 관점을 14세기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별(이때의 별은 태양과 달, 행성을 주로 지칭한다)이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했으나, 별이 자연에 미치는 유일한 힘의 원천도 아니고, 게다가 그것을 인간이 경험적으로 파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점성가들이 주장하듯이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븐 할둔(2003), 김호동 역, 『역사서설』, 까치, 6장 31절 ‘점성술에 대한 반론, 그 성취의 취약성과 목표의 유해성’ 참고. 이븐 할둔의 언급을 검토해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연금술도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반대로 별다른 매개 없이, 혹은 그릇을 응시하거나 동물의 특수 기관을 관찰하거나, 동물의 행위를 관찰하거나 곡식을 던지는 방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들이 선천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지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수피의 기적 혹은 예언력도 그러한 부류라고 보았다. 이는 예언자가 아닌 이들의 예언을 부정한 정통 율라마와는 다른 관점이다.

를 바라보며 만조와 간조의 발생 및 그 정도가 달과 태양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열심히 설명했다. 즉, 달이 천정과 천저를 향해 가면 물이 만조가 되고, 지평선에 있으면 간조가 된다. 또한 달이 태양과 삭·망월 이룰 때는 만조의 수위가 높아지며 달과 태양의 위치가 90도를 이루면 만조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sup>21</sup> 현재의 과학에서는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조석 현상을 해석하고 있는데, 만유인력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과거에는 천체인 달의 위치 및 위상변화가 모종의 힘을 발휘하여 지상에서 조석 현상의 격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비과학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자연 현상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관찰이라는 전근대의 과학적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정 자연 현상이 천체의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고 여기는 헤르메스주의적 전제, 그리고 비슷한 주기를 가진 두 사건을 상용 관계로 연결하는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방식 등 당대에 각광받는 철학적 사고를 기저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석 현상은 이슬람 점성술의 이론적 대가인 아부 마샤르(Abū Ma'shar al-Balkhī)가 점성술의 효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천체의 움직임이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할 때 좋은 증거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전술한 철학자들과 점성가들의 입장 차이는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가였다.<sup>22</sup> 점성가들은 천체의 움직임이 지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간이 파악할

21 Naṣīr Khusraw (2001), Wheeler M. Thackston Tr., *Nasir-i Khusraw's Book of Travels*, Mazda Publishers, p. 120.

22 이슬람 철학자들과 유사하게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고리상의 특징으로 인해 다소 독특한 시각을 보였던 이스마일리게 시아파의 관점을 보면, 파티마조의 칼리프 만수르(al-Manṣūr bi'llāh)의 경우 천문학을 배운 이유가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의 유일성에 대해 고백하기 위해, 그리고 신의 창조 행위에 대한 지혜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니 무슬림이 강조하는 종교 율법 못지 않게 내면(Batīn)의 지혜(Hikma)를 중시했는데, 이것은 신이 예언자와 알리를 통해 그의 후손인 이맘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파티마 칼리프는 이맘이므로 그 역시 신이 전하는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별의 예언과 양립 불가할 때가 많다면 내면의 지혜

수 있다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 이것을 이론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점성술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분야이니만큼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과학이라는 것이다. 이슬람권의 유명한 점성가들은 철학자나 자연과학자 못지않게 수많은 저작을 남겼는데, 그 저작은 점성술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성공적인 점술 사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올라마와 철학자, 그리고 점성가가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식인이 아닌 다른 계층은 주로 후자인 점성가에게 신뢰를 두기 마련이었다. 여러 생업에 종사하는 피지배계층은 물론이고, 고위 계층인 정치인과 군사 집단 역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성가들의 말에 끌리게 되었다.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은 더 나아가, 예측된 미래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꾸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마법’이라 불렀다.<sup>23</sup> 물론 무슬림이라면 원론적으로는 신에게 간구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그것보다는 부적이나 영혼 소환술, 신비한 약물이나 광물 등을 이용하는 비신학적 방법이 이슬람권의 전 계층에서 만연했다.

이처럼 대중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점성가의 위상은 상당했지만, 전술한 두 집단으로부터 비판 공격을 받았을 때 정당성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문제였다. 그러므로 점성가들은 이슬람권 내에서 정당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살펴보자.

---

의 우월성을 주장했다(Heinz Halm (1997), *The Fatimids and their Traditions of Learning*, New York: London: I. B. Tauris Publishers, p. 85).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별의 예언을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천문학에 열의를 보였던 칼리프 알하킴(al-Hākīm bi'-Amr Allah)의 경우, 그에 관한 많은 기록이 훗날의 순니 무슬림의 것이므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점성술, 나아가 미래를 바꾸는 마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Aydin Sayili, p. 143). 즉 당시의 많은 지식인이 천체가 지상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이었으나, 그것을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그것이 다른 방면의 지혜와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는지 등의 문제에서 의견이 엇갈린다고 볼 수 있다.

23 Emilie Savage-Smith Ed. (2004), p. xiii.

### 2.3. 점성술 학자들의 노력

앞서 이야기했듯이 점성가와 점성술이 마주하게 되는 비판은 신학적 비판과, 비신학적 비판이었다. 우선 신학적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점성가들은 크게 두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첫 번째는 점성술의 역사적 배경에 종교적 윤색을 가하는 일이었다. 이슬람 점성술 자체가 헬레니즘 문명을 비롯하여 고대 중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문명까지 고대의 여러 문명 속 점성술을 조합하여 구축된 것인데, 그렇다 보니 이슬람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교도적인 유래가 상당히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슬람권에서 인정할 만한 점성술 역사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슬람권의 여러 마법과 주술의 기원이 대부분 다니엘, 이드리스(Idris), 솔로몬 등 고대 예언자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sup>24</sup> 이슬람 점성술도 이러한 역사를 갖추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쿠란에 등장하는 아담과 노아 사이에 있는 예언자인 이드리스를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쿠란에는 이드리스가 신실하고 참을성 있는 예언자로만 기록되어 있고, 하디스에서도 이드리스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을 때 천국에서 보았던 예언자 중 하나로만 그려졌는데, 이슬람의 전승에서는 그를 성경의 에녹과 연결하곤 했다. 그런데 일부 이론 점성가들이 에녹을, 헬레니즘 문화에서 점성술과 관련된 지식의 출처로 여겨왔던 헤르메스 트리сме기스토스(Hermes Trismegistus)<sup>25</sup>와 연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드리스는 이슬람권 점성술 지식의 출처로 귀결되었다. 물론 이드리스를 헤르메스와 직접 연결

24 Emilie Savage-Smith Ed. (2004), p. xxi.

25 이집트의 신인 토트(Thoth)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Hermes)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 시기에 동일시되면서 탄생한 전설적인 고대 이집트 성자로, 언어와 종교, 음악, 천문학, 더 나아가 모든 지혜와 철학의 출처로 여겨졌던 인물이다. 특히 두 신 모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마법의 힘을 주관한다고 여겨졌다(Florian Ebeling (2019), David Lorton Tr., *The Secret History of Hermes Trismegistus: Hermeticism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pp. 3-5).

짓는 것은 이슬람 교리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전술한 아부 마샤르는 대홍수 당시 행성의 위치에 관한 일화와, 예언자였던 이드리스가 신에게서 받은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대중화함으로써 점성술의 기원을 쿠란의 예언자 중 하나에게 귀결짓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이븐 시나는 이 점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sup>26</sup> 그러나 한번 흥미로운 서사가 구축된 이상, 그것이 이슬람권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또 하나의 만들어진 역사는 점성술을 포함한 오컬트 과학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제자인 알렉산더에게 보낸 서한에 오컬트 과학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훌륭한 학자의 이름을 빌려 점성술의 유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그 서한에는 점성술과 함께 마법, 화학, 의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지식을 헤르메스의 숨겨진 과학에 관한 책에서 접했다는 것이다. 한편 플라톤의 저서에 종종 등장하는 창조자 데미우르고스(Demiurgos)가 아담에게 전술한 다섯 가지 학문의 비밀을 가르쳐주었다는 이야기도 자주 이용되었다.<sup>27</sup> 이는 이슬람 교리와 더불어 헬레니즘의 위대한 철학자까지 한 번에 끌어안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10세기 무렵 이스마일리 종파의 전통에서 탄생한 ‘순결의 형제들(Ikhwān al-Safā)의 서신’이라는 방대한 백과사전류 저작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이후 여러 저작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차 점성술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다.

비슷한 방법으로 고대 현자나 예언자가 아니라, 이슬람 창시 이후의 중

26 Aydin Sayili (1988), p. 38; 예를 들어 중동의 주요 오컬트 과학 중에 하나인 해몽은 창세기에 등장하며 이슬람 예언자이기도 한 요셉의 주특기였다. 그는 해몽을 통해 이집트에서 고위 관직을 얻고 자기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했다.

27 Liana Saif 外 eds. (2020), *Islamicate Occult Sciences in Theory and Practice*, Leiden; Boston: Brill, p. 3.

교적 인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시아파가 점성술적 전통에 비교적 친숙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재도 종교법적 효력을 지닌 ‘전갈 자리의 달은 불운하다’라는 문구가 있다. 현재에도 포털 사이트에 ‘달이 전갈자리에’(Qamar dar āqrab)이라는 검색어만 치면, 매달 어느 날짜에 달이 전갈자리에 드는지에 관한 자동검색어가 등장할 정도다. 이 믿음의 근거는 시아파의 하디스인데, 6대 이맘인 자파르 알사디크(Ja'far al-Sādiq)가 달이 전갈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여행하거나 결혼 계약을 맺는 것을 만류(Makruh)했다는 것이다.<sup>28</sup> 시아파의 여러 법학 도서 및 의견서(Fatwa)에서는 해당 하디스를 근거로 하여 달이 전갈자리에 있을 때 여행이나 결혼을 기피하는 행위를 적법한 것이라 여겨왔지만,<sup>29</sup>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점성술의 금기에 가깝다.

28 al-Kulaynī (1984), *al-Kāfī* 8, Tehran: Dar al-Kutub al-Islamiyya, p. 275; al-Muḥaqaq al-hīlī (1409AH/1988-9), *Harāī' al-Islām fī Masāil al-halāl wa al-harām* 3, Tehran: Munshūrāt-i Istaqlāl, p. 211.

29 예로 17세기 사파비조의 주요 시아파 종교학자이자 사상가였던 무함마드 바키르 마즐리시(Muḥammad Bāqir Majlisī)는 자신의 하디스 선집 『빛의 바다』(*Bihār al-Anwār*)에서 이맘 사디크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디스에서 ‘달이 전갈자리에 있는 동안 여행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것을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13세기의 시아파 법학자인 이븐 타부스(Ibn Tāwūs)도 알리와 연결지어 매달 (천구인) 달이 그름이거나 전갈자리에 있을 때 여행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최근의 시아 법학자들은 위의 시각과는 변화된 시각을 보이지만, 하디스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세기의 가장 저명한 시아파 학자 중 하나였던 알라마 타바타바이(Allamah Ṭabāṭabāī)는 ‘이성과 샤리아의 관점에서 별의 상서로움과 불운함’이라는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태양과 목성과 두 길성의 합일이 상서로움’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화성과 두 흉성의 합일과 달이 전갈자리에 있는 것의 불운함도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하디스의 문구를 의식한 듯, 하늘의 상황과 땅의 사건들을 단연하여 관계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간혹 예언이 맞기도 하지만 간혹 맞지 않기도 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관계가 있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한편 그가 제시한 또 다른 이맘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맘 리다(al-Ridhā)는 여성과 가까워지는 것은 달이 물고기자리나 물병자리에 있을 때 좋으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황소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달의 엑셀테이션 디그니티(Sharaf, 점성술에서 행성의 다섯 가지 본질적 위계 — 행성이 12궁 중 위치에 있는가에 따른 행성의 상태 — 중 하나로, 엑셀테이션은 특정 행성이 최고의 위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즉, 현재의 학자들조차 해당 하디스가 점

이 내용이 어떤 경로로 시아파 하디스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맘 자파르 알사디크가 점성술뿐 아니라 온갖 오컬트 과학 및 마법의 권위자로 상정되었음은, 중세에 작성된 수많은 관련 사료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30</sup>

신학적 비판에 대응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최대한 이슬람의 금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슬람 점성술 중에 유독 성행했던 것이 '선택 점성술'이다. 이 글의 소재인 나시르 앳딘 투시의 시가 바로 선택 점성술의 예시이다. 달이 황도 12궁 중에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어떤 행동은 좋고, 어떤 행동은 좋지 않음을 나열한 이 시구는 앞서 이야기한 '전갈 자리의 달'과도 유사하다. 그런데 이 선택 점성술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쿠란과 하디스에서 언급한 "신 이외에는 미래를 볼 수 없다."라는 금기를 교묘히 피해 가기 때문이다. 선택 점성술에서 점성가는 특정 행동이 행운이거나 불운이라고만 이야기했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이슬람권의 역사서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무슬림 군주가 점성가에게 묻는 일화가 등장할 때, 많은 경우 특정 행동에 대한 행운과 불운 여부를 묻는 식으로 진행되곤 한다. 나시르 앳딘 투시 또한 훌레구(Hülegü)가 바그다드(Baghdad)로 진격할 때, 그 진격이 행운일지 불운일지를 묻는 질문을 받은 바 있었다.

이처럼 점성가들이 신학적인 비판을 회피하거나 과거를 윤색함으로써 대응했다면, 비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점성술의 이론을 세련되게 발전

---

성술에서 기원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Sayyid Muḥammad Ḥusayn Ṭabāṭabāī (1374Sh./1995-6), *Tarjuma-yi Tafṣīr al-Mizān* 19, Qum: Daftar-i Intishārāt-i Islāmī, pp. 121-123]. 시아파가 점성술에 비교적 관용적이었던 점은 George Saliba (2004), p. 347 참조.

30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고문서 중에 '숨겨진 과학' 범주에 포함된 책들을 보면, 『占書』(*Fāl-nāma*)라는 제목을 가진 여러 종류의 점술서는 대부분 자파르 알사디크에서 점술 방식이 유래되었다고 소개한다. 또한 해몽이나 문자주의, 인상학 관련 저서도 각 학문의 기원을 자파르 알사디크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시킴으로써 대응했다. 전술한 점성가 아부 마샤르는 12세기에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적 발상과 개념을 재발견하게 되는 매개체로 잘 알려져 있다.<sup>31</sup> 아부 마샤르는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상의 세계는 필연적으로 천상 세계의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저서 『발생과 부패에 대하여』(*On Generation and Corruption*)에서 ‘다가오는 것과 지나가는 것은 하늘의 회전 운동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아부 마샤르는 이러한 대전제를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적, 자연과학적 성과를 자신의 점성술 이론에 포함하여, 보다 세련된 점성술 이론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천문학과 점성술과의 관계를 천구에 대한 ‘정량적인 과학과 정성적인 과학,’ ‘별에 대한 수학적 계산 및 관찰의 과학과, 별을 이용한 판결의 과학’ 등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점성술 또한 천문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천문학과 점성학은 모두 우주론적 배경과 정밀한 관측 및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하되 연구 방법이 서로 다른 학문이었다.<sup>32</sup>

다만 점성가들이 모두 이러한 고차원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부 마샤르와 동시대에 활동했으며, 이슬람 이전 여러 문명의 점성술을 종합하여 이슬람 점성술을 개관했다고 일컬어지는 마살라나 사홀과 같은 이들도, 대부분 점성술을 구현하는 실천적 분야(‘Amili)에 주로 집중했다. 이들이 이용한 자료는 주변의 여러 고대 문명에서 기원한 『테트라비블로스』, 『카르멘』 등과 같은 저서들이기는 했으나, 이들이 그 저서 속에서 취한 것은 어떻게 천궁도를 그리고, 어떻게 별들의 위치를 해석하는가였으며, 그 기저에 있는 우주론이나 수학적 이론에 주의를 기울인 것은 아

31 Richard Joseph Lemay (1962), *Abu Ma'shar and Latin Aristotelianism in the Twelfth Century: The Recovery of Aristotle's Natural Philosophy Through Arabic Astrology*, Beirut: Catholic Press.

32 Laina Saif (2015), *The Arabic Influences on Early Modern Occult Philosophy*, Palgrave Macmillan, pp. 13-14.

니었다. 하물며 일반 점성가들은 점성술의 고대 기원이나 기저에 있는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약간의 기술만으로 손님을 끌어모으려는 이들이 많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적인 쟁점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하는 점성가들과 반대의 길을 걷는 이들도 많았다는 점이다. 신은 아니나 미래를 알고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회피하기 위해 선택점성술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일부의 점성가와와는 달리 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미래를 알고 있음을 어필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마법을 주저 없이 사용했다.<sup>33</sup> 그들은 대부분 학식이 그리 높지 않은 거리의 점성술사들이었지만,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스마일리 종파의 왕조였던 파티마조의 칼리프 알하킴은 행성과의 영적 접촉을 통해 행성에 영향을 미쳐 지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 비종교적인 미래 변화를 꿈꾸기도 했다.<sup>34</sup>

지금까지 이야기한 점성술의 발전과 외부의 비판, 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이슬람 고전시기인 10세기 무렵까지의 상황이다. 고전시기의 아랍 점성술에 관한 다수의 연구로 업적을 남긴 데이비드 핑그리에 의하면, 점성술이 성립된 8~9세기 이후에는 독창적인 점성술 이론 논문이 거의 작성되지 않았고, 대부분 옛 전문가들의 이론을 반복하는 편지이거나 요약본만 저

33 인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한 올라마와 철학자의 시각도 달랐는데, 전통적인 올라마라면 그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했으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혹은 천체나 원소, 숫자 등의 도움을 받아, 상상의 힘으로 특정 대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마법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다만 그것은 알라 이외의 다른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며 그것은 불신앙이고 부패한 영향력인데다 신의 계시 및 기적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후대로 갈수록 이러한 시각이 이슬람권에서 더욱 성행했다.

34 Aydin Sayili (1988), p. 40. 알하킴은 ‘미친 왕’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인물로, 성모교회를 파괴하거나 한때 총애하던 왕실 점성가를 비롯한 관료들을 과도하게 처형하거나, 국내의 소수 종교인들을 박해했던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이는 드루즈라는 이슬람의 경계를 넘어버린 이단종교가 그를 숭배한다는 점, 그리고 미스터리한 그의 실종과 죽음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근대 학자들의 그에 대한 평가 역시 편이한 편이다[Paul E. Walker (2009), *Caliph of Cairo – al-Hakim bi-Amr Allah, 996-1021*, Cairo; New York: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pp. 92-93].

술되었다고 한다.<sup>35</sup> 이 편저나 요약본을 작성하는 이들도 각 왕조의 군주나 고위 관료의 점성가들이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성립된 이론과 관행에 따라 점성술을 행했던 것이다. 반면에 점성술을 비판하는 이들의 논리와 주장은 10세기부터 강화되어 14세기 무렵에 정점에 이르게 된다. 비록 중세 이슬람권에서 왕궁부터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사람들이 점성술을 소비하고 점성술사들을 신뢰했으나, 지식인들에게는 큰 비판을 받았으며 그들의 이론적 배경은 신학자, 법학자, 철학자부터 자연과학자, 수학자와 천문학자 등 점성술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의 학자까지 다양했다.

벨기에의 중세 이슬람 철학 연구자인 야흐야 미쇼(Yahya J. Michot)는 점성술과 결별하게 된 맘루크의 모스크 천문학자들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의 천문학자들은 점성술과 분리되어 이슬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천문학, 즉 태음력, 기도시간, 끼블라의 방향 계산, 그리고 보다 수학적인 방식으로 프톨레미 모델을 개정하는 순수 학문 연구를 집중했고, 그것이 가능할 정도로 종교사회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데이비드 킹(David, A. King)이 카타르의 도서관 Dar al-Kutub에서 과학서 사본 2500개를 조사한 결과 점성술에 관한 사본이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주장했다.<sup>36</sup> 물론 도서관 한 곳의 상황이 이슬람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점성술을 비판하는 전근대 무슬림 지식인들이 특히 중세에 활발히 그들의 이론을 구축했고, 반면에 점성술은 지식인의 영역에서는 다소 배제되어 있었다는 의견이다.

아랍 과학사를 연구하는 조지 살리바(George Saliba) 역시 비슷한 주장을

35 David Pingree (1990), "Astrology", *The Cambridge History of Arabic Literature: Religion, Learning, and Science in the 'Abbasid Period* (Ed. by M. J. L. Young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90-300.

36 Yahya J. Michot (2000), "Ibn Taymiyya on Astrology annotated translation of three Fatwas", *Journal of Islamic Studies* 11-2, p. 149.

했는데, 그 역시 중세 이슬람권에서 점성술의 성행에 대해 동의하면서도,<sup>37</sup> 여러 분야의 지식인이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점성술의 여러 가지 면모를 비판했음을 주장했다. 그중 이슬람 과학자인 조지 살리바가 집중한 것은 천문학자였다. 10세기 무렵까지는 초기 천문학자가 곧 점성가인 경우가 많았지만, 11~15세기 이슬람 천문학자들이 프톨레미를 정점으로 하는 그리스 천문학 이론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우주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학자 중에 다수가 기존 그리스 천문학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성술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것이다.<sup>38</sup> 그는 점성술 관련 서적을 작성하여 점성술에 호의적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 알비루니의 관련 기록을 분석했는데, 그는 군주에게 바치는 점성술 매뉴얼을 작성하기도 했지만, 그 책의 많은 부분을 순수 수학 이론과 천문학 이론으로 채웠다. 또한 그 책 안에서도 점성술을 ‘정확한 과학’(Exact Science)의 범주에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판한다. 그들의 이론은 천문학만큼 상세하지 않은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일부의 점성가는 복잡한 수학·천문학적 이론을 점성학에 반영하려 하고, 다른 일부는 점술가나 다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중세에 점성술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에게 비판을 받았고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천문학이었다면, 천문학의 거두라 할 수 있는 나시르 앳딘 투시는 점성술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 있었을까. 현재까지 투시의 점성술에 관한 관점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2장에서는 기왕의 자료와 더불어 투시가 직접 작성한 점성술 관련 작품을 이용하여 그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37 George Saliba (2004), p. 362.

38 George Saliba (1995), *A History of Arabic Astronomy: Planetary Theories During the Golden Age of Islam*, NYU Press, pp. 57-61.

39 George Saliba (1995), p. 59.

### 3. 『투시의 택일』 사본 분석과 나시르 앳딘 투시의 입장

#### 3.1. 전 세계의 사본 현황

찰스 스토리의 카탈로그를 보면 나시르 앳딘 투시는 택일(Ikhtiyarat)에 관한 작품 두 개를 작성했는데 하나는 산문이고 다른 하나는 운문이다.<sup>40</sup> 그중에 이 연구의 대상인 운문 작품, 『투시의 택일』은 황도 12궁의 각궁마다 3행씩 36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까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은 다 합하여 40개다.

##### 3.1.1. 서구의 사본

프랑스 파리 Manuscripts Persan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No. 772 (21): 해당 박물관의 카탈로그에 따르면 수학에 관한 24개의 짧은 글 모음 중 21번째 글에 해당한다.<sup>41</sup> 그 중 첫 번째 논문은 나시르 앳딘 투시의 아스트롤라베 작동법 및 �블라 방향을 확인하는 방향에 관한 20가지 항목을 서술한 'Bīst Bāb'이며, 두 번째 논문은 티무르조 시기에 수학과 천문에 관한 책을 쓴 마흐무드 하라위(Mahmūd Harāwī)의 산술에 관한 요약서이다. 세 번째는 삼각형의 사인표, 네 번째는 나눗셈과 소인수분해, 다섯 번째는 페르시아 여러 도시에서 �블라의 방향을 찾기 위한 표, 여섯 번째는 도시 야즈드(Yazd)에서 카바의 방향을 찾는 방법, 일곱 번째는 셀주크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형 측량, 여덟 번째는 토지를 관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40 Charles Ambrose Storey (2021), "3. Astronomy and Astrology", *Persian Literature: A Bibliographical Survey 2 - Mathematics; Weights, and Measures; Astronomy, and Astrology; Geography; Medicine; Encyclopaedias, and Miscellanies; Arts and Crafts, Science, Occult Arts*, Brill, 2025.1.19. <https://referenceworks.brill.com/display/entries/SPLO/COM-20300000.xml>

41 E. Blochet (1912), *Catalogue des manuscrits persan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2*, Paris: E. Leroux, pp. 45-46.

과 Nuba라 불리는 기구의 작동법, 아홉 번째도 측량 관련 논문, 10~11번째는 부피와 표면 측정 방법, 12번째는 산술 문제와 해결법, 13번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일부, 14번도 기하학에 관한 논문, 15번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등분, 16번도 산술에 대한 논문, 17~18번은 기하학 구조에 관한 논문, 19번은 문자주의에 관한 논문, 20번은 황도12궁과 달의 합에 따른 점성학적 구조, 22~23번은 기하학적 구조에 관한 논문, 24번은 손가락으로 수를 세는 것에 대한 논문이다. 17세기 초에 작성된 사본.

영국 British Library, Oriental Manuscripts의 IO Islamic 3786(11): 종교, 윤리, 기도, 격언, 측시학, 천문학, 서예에 관한 짧은 글들의 모음집인 책 중 11번째 글에 해당한다.<sup>42</sup> 같은 모음집 내의 일부 사본이 1514년경에 작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6~17세기에 작성된 모음집.

영국 옥스퍼드 대학 Bodleian Library의 MS. Bodl. Or. 413(2): 천문학과 점성술에 관한 산문과 운문의 조합인 이 모음집의 2번째 글에 해당한다.<sup>43</sup> 보

42 이 사본과 함께 있는 논문들을 살펴보면, 1) 투르 산에서 신과 예언자 모세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 2) 왕자에 대한 귀감서, 3) 수피의 신앙에 대한 논문, 4) 알리에게 바치는 기도문의 게시 유래에 대해 설명한 시아파 전통의 논문, 5) 수피 교육에 대한 매뉴얼, 6) 현인들의 격언 모음집, 7) 종교-윤리적인 조언 8) 림의 왕이 알리에게 했던 40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 9) 7가지 별의 긍정/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논문, 10) 아부 마샤르가 작성했다고 일컬어지는, 7일 동안 각각의 행성에게 배정된 시간에 관한 글, 12) 문자주의적 해몽에 관한 글 13) 서예에 관한 매뉴얼 등이다["IO Islamic 3786 (Oriental Manuscripts, British Library)", *Fihrist - Union Catalogue of Manuscripts from the Islamicate World*, 2025.1.19. [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17914](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17914)].

43 이 사본과 함께 있는 다른 논문들을 살펴보면 1) 투시가 작성한 달력의 이점에 관한 요약본(Si-Faṣḥ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3) 아부 마샤르의 작품에 관한 요약본, 4) 아스트롤라베에 관한 논문 5) '공과 폴로'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진 마흐무드 아리프 하라비의 신비주의적 작품, 6) '왕과 거지'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15-6세기 투르크계 시인 힐랄리 차가타이(Hilālī Chaghatai)의 시집["MS. Bodl. Or. 413 (Bodleian Library, Oxford University)", *Fihrist - Union Catalogue of Manuscripts from the Islamicate World*, 2025.1.19. [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22894](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22894)].

들레안 도서관의 Catalogue of the Persian, Turkish, Hindustani and Pushtu manuscripts 1512번.

### 3.1.2.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바야지드 도서관의 2269번 사본의 3번째\*<sup>44</sup>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도서관의 2620번 사본의 2번째, 4840번 사본\*

### 3.1.3. 요르단

요르단의 Prince Ghazi Trust for Qur'anic Thought의 사본\*: '이 논문은 현자들의 왕 Khwaja Naṣīr al-Dīn Tūsī의 시로, Aḥkām-i Ikhtiyāt-i Qamar dar Buruj athnā 'ashar라고 한다.'라는 제목과, 다른 사본에는 없는 3행의 시 이후에 시작(pp. 48-52). 바로 『별들의 입구』(Madkhal-i Manzūm)가 이어지며 그 뒤에 이슬람력 1292년(1875~6년) 콜로폰(pp. 52-82).

### 3.1.4. 이란

이란에는 현재 인터넷 카탈로그로 26개의 사본을 찾을 수 있으며,<sup>45</sup> 이란 국회도서관에서 원본을 볼 수 있는 형태로 4개의 사본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소장처를 정리해 보면 Nasriyya (Nuskahā-yi Khaṭṭī-yi Kitākhāna-yi Markazī-yi Dānishghāh-yi Tehrān) 8권, Dāira al-Ma'ārif-i Buzurgh-i Islāmī에 1권, Dānishkada-yi Ḥuqūq wa 'Ulūm-i Siyāsī-yi Dānishghāh-i Tihārān에 2권, Kitābhāna-yi Markazī Dānishghāh-yi Tehrān에 7권, Kitābhāna-yi Madrasa-yi 'ālī-yi Shahīd-i Muṭahar-i Sipahsālār에 1권, Kitābhāna-yi Markazī-yi Aḥiyā'-yi Mirāth-i Islāmī에 1권, Kitābhāna-yi Milī에 1권,

44 사본 설명 중에 \*가 있는 것은, 같은 모음집 내에 『별들의 입구』가 포함된 경우를 의미한다.

45 온라인 카탈로그의 주소는 <https://aghazorg.ketab.ir/>이다. 이란 내의 다양한 사료 소장고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Kitābkhāna-yi Shūrā-yi Islām에 9권이 있다. 그중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란 의회도서관의 4345번 사본\*: 이 책 역시 천문학 및 점성학에 관한 다양한 논문의 모음집으로, 투시의 작품이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7번째 글에 해당한다.<sup>46</sup> 이슬람력 1257년(1841-2년)에 필사되었다. 이 사본은 『투시의 택일』을 ‘달이 황도 12궁의 각 별자리로 접근할 때’(36행)라는 제목으로 두었고, 그 뒤에 ‘달이 다른 행성과 에스펙트<sup>47</sup>할 때’<sup>48</sup> ‘장의 시작’(Futuḥ al-Bāb), ‘운율로 된 서문의 끝’(Tamāmī Madkhal-i Manzūm)<sup>49</sup> 등 『별들의 입구』라는 점성학 작품의 일부를 합하여 하나의 작품처럼 기록했다.

이란 의회도서관 6894번 사본 모음집\*: 이 사본은 이슬람력 842년(1438-9년)에 필사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필사본이며, 책의 이곳저곳에 16세기 사파비조의 학자인 술탄 후세인 알 와이즈(Sultān Husayn al-Wā'iz)의 소유라는 글과 함께 인장이 찍혀있다. 해당 사본의 4번째 글에 해당한다.<sup>50</sup> 다만 이

46 이 모음집에 포함된 다른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알 우르디(al-'Urdhi)의 (천문) 관찰 방법에 관한 논문, 2) 쿠틀 앳딘 시라지(Qutub al-Dīn Shīrāzī)의 유클리드의 문제에 관한 설명의 논문 3) 서유럽인들의 상황에 관한 논문, 4) 투시가 번역한 유사-프톨레미의 『열매의 책』 5)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를 위해 작성한 글이라 하며, 별에 관한 쟁점들을 다룬 책 6) 투시의 글이라 하며, 일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는 글, 8) 16세기 학자 셰이크 바하이(Shaykh Bahā'i)의 �블라 방향에 관한 논문, 9) 궁의 표면 넓이에 관한 논문, 10) 우마이야조의 왕자이자 연금술사로 알려진 칼리드 이븐 야지드(Khālid ibn Yazid)의 연금술에 관한 저서, 11) 연금술에 관한 전문용어들, 12) 압둘 자바르('Abd al-Jabbār)의 공예에 관한 기록 13) 연금술에 관한 논문, 14) 아부 마알리의 '주석과 경험'

47 행성과 행성 간의 관계(Aspect)를 의미한다. 점성의 주요 정보 중 하나가 여러 행성이 12궁 중에 어디에 자리하는가인데, 합일은 같은 궁에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30도, 60도, 90도, 120도 각을 이루는 경우가 각기 다른 에스펙트에 해당한다.

48 『별들의 입구』의 일부분이다.

49 『별들의 입구』의 마지막 부분이다.

50 이 모음집의 다른 논문을 보면 1) 11세기 시아파 학자인 셰이크 투시(Shaykh Tūsi)의

사본은 『투시의 택일』 중 앞의 6궁을 ‘달이 황도 12궁의 각 별자리로 접근할 때’ 라는 제목으로 기록한 후 다시 ‘호자 나시르 앓던 투시의 택일’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데, 다시 앞의 6궁이 끝난 시점에서 『별들의 입구』의 일부인 ‘달이 다른 행성과 애스펙트할 때’ 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끝난 후 ‘장의 시작,’ ‘운율로 된 서문의 끝’ 부분이 이어지고, 다시 ‘청원할 때,’ ‘계약을 맺을 때’<sup>51</sup> 등의 상황에서 택일법에 대한 시구가 이어지고 끝난다.

이란 의회 도서관 23번 사본: 이 사본은 이슬람력 837년(1433-4년)에 작성되었으며, 해당 사본의 2번째 글이다. 첫머리에 ‘나시르 앓던 투시의 택일’이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작성되어 있다. 이 사본은 『투시의 택일』(36행)과, 달이 각 별자리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행의 시가 있고 끝난다.

이란 의회도서관 9087번 사본: 해당 사본의 49번째 글로, 제목 없이 한 페이지에 비스듬하게 작성되어 있다. 『투시의 택일』(36행)의 내용만 있다.

이란 의회도서관 6369번 사본\*: 해당 사본의 3번째 글이다.<sup>52</sup> 이 사본은 ‘달이 성좌에 있을 때 택일’(Ikhtiyārāt-i Māh dar Buruj)이라는 제목으로 시작

---

‘신학의 서론’, 2) 15세기에 작성된 이라크 출신 시인 이븐 파흐드 알 힐리(Ibn Fahd al-Hilli)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책’(철학과 선지학에 관한 페르시아 시), 3) 운율에 관해 (사이에 이맘 자파르 알사디크의 글을 인용하여 달이 어떤 궁에 있는가로 ‘노루즈’를 아는 방법에 대한 짧은 글), 4) 본문(까마귀의 울음과 지진이 표징하는 바), 5) 이맘 사디크의 택일, 이슬람력 845년(두 이드의 기도 방법에 관해), 6) 장기의 경련에 관해, 7) 하디스들, 8) 40개의 하디스, 9) 16세기 사파비조의 시아파계 학자 술탄후세인 와이즈의 ‘이야기’

51 『별들의 입구』의 일부분이다.

52 이 모음집의 다른 논문을 보면 1) 샴스 앓던 무함마드 시린 마그리비(Shams al-Dīn Muḥammad Shīrīn Maghribī, 15세기)의 디반, 2) 『별들의 입구』

하는데, 이란 의회도서관의 4345번 사본처럼 여러 상황에서의 택일법에 대해 서술한 후(121뒤~124앞), ‘달이 다른 행성과 애스펙트할 때’로 이어진 다음 ‘장의 시작,’ ‘운문으로 된 도입의 끝’(124앞~126뒤) 등 『별들의 입구』의 내용이 선행된 후, 글을 마무리 짓는 비스밀라와 함께 『투시의 택일』(36행)과 이슬람력 1303년(1885~6년)이라는 콜로폰이 있고 끝난다.

카탈로그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이란 학자 Raḥīm Rizāzāda Malak에 따르면 이슬람력 723년 라비 알아왈 월 13일(1323년 3월 21일)에 필사된 사본이 있다고 한다. 이 사본은 『투시의 택일』(36행) 뒤에 두 행의 시구가 있는데, 이란 의회 도서관 23번 사본의 두 행과는 내용이 다르다.<sup>53</sup> 다만 기왕의 카탈로그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 개인 소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본은 알려진 현존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

### 3.1.5.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알비루니 문서 소장고: 2권 소장. 둘 다 3장 이내.

사본의 현황을 볼 때, 이 작품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모음집’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때 모음집에 함께 수록된 작품들은 사본마다 다양한 편인데, 과리 사본처럼 수학, 천문 등의 이론과학과 측량, 토지 관개 등 실용 과학, 점성학과 문자주의 등 오컬트 과학과 함께 집성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국 도서관(British Library) 사본처럼 종교, 윤리, 기도, 격언, 측시학, 천문학, 서예 등 과학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분야를 모아놓은 모음집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필사 시기도 13~19세기까지 다양하다. 대부분의 사본에서 ‘나시르 앳딘 투시의 택일’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다른 저자에 관한 언급은 없다. 또한 『투시의 택일』

53 Anonymous (1384Sh./2005-6), pp. 162-166.

은 전술했듯이 『별들의 입구』라는 점성술 저서와 같은 모음집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란의 일부 사본은 양자가 뒤섞여 있는 사본을 구분하지 않고 『투시의 택일』로 파악하기도 한다. 『별들의 입구』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백여 개의 사본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점성술 시집으로, 여러 사본 및 도서 목록, 역사서 등에서 각기 압둘자바르 후잔디(‘Abd al-Jabbār Khujandi)와 나시르 앳딘 투시, 그리고 파흐르 무바라샤 구리(Fakhr Mubarkshāh Ghūrī)를 각기 저자로 지목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별들의 입구』의 초기 사본을 근거로 압둘자바르가 이슬람력 616년에 이 시집을 저술했을 것으로 추측한다.<sup>54</sup> 압둘자바르에 관해서는 다른 기록이 없어, 이슬람력 7세기(13세기)에 중앙아시아 후잔드에서 유명했던 점성가로 추정된다. 일부 판본에서 『별들의 입구』의 저자를 나시르 앳딘 투시로 지목한 이유는 아마도 이 책이 『투시의 택일』과 뒤섞여 있는 사례가 많고, 두 저자의 생존 시기가 비슷한데다 나시르 앳딘 투시가 당대나 후대에 천문학 방면에서 더욱 유명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렇다면 『투시의 택일』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서문에서 36행 중에 제일 첫 별자리의 3행에 관해 제시했듯이, 『투시의 택일』은 이 각 별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행위가 길하고, 어떤 행위가 흉한지에 관해 마스나비의 형식으로 서술한 시이다. 그러다 보니 특정 인물에게 특화된 내용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1 항성월을 기준으로 여러 행동의 길흉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는 전술한 이맘 자파르 사디크의 ‘전갈자리의 달’과 유사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투시의 택일』이 담고 있는 내용 및 그 기저의 이론을 『별들의 입구』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별들의 입구』는 『투시의 택일』에 비해 분량이 10배가량 길고, 그 내용을 보면 주요한 점성술 이론에 관한 부분과, 그것을 바탕으로 각 상황(전쟁할 때, 목욕할 때, 왕을 만날 때 등등)이 어떠

54 Anonymous (1384Sh./2005-6), p. 156.

한 천문현상에서 길하고 흉한지 제시하는 ‘택일’(Ikhtiyārāt)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별들의 입구』의 ‘택일’ 부분에서 제시된 천문현상을 보면 단순히 달이 특정 별자리 중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길흉이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행성의 위치도 고려하고, 여러 행성 간의 합일이나 다른 애스펙트 등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또한 출생 시점이나 질문 시점 등 특정 시간을 점성적 해석의 시발점으로 삼기도 하는데 이것은 각 개인 혹은 질문자의 천궁도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장에서 언급한 점성술의 종류 중에 ‘판단 점성술’에 해당한다. 반면에 『투시의 택일』은 어려운 수학적 계산이나 관측, 천궁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연 점성술’에 가깝다.

물론 『별들의 입구』의 ‘택일’ 부분 중에서도 달이 어느 별자리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길흉을 가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미르의 얼굴을 보는 것이나 여행하는 것, 새 옷을 입는 것은 모두 ‘달이 양자리에 있을 때’ 길한데, 『별들의 입구』를 살펴보면 전술한 세 개의 상황은 모두 달이 ‘Manqalab’ 별자리에 있을 때 길한 것으로 되어 있다. Manqalab 별자리란 황도 12궁을 세 부류로 나눈 것 중 하나로 양자리와 게자리, 천칭자리와 염소자리를 포함하는데, 『투시의 택일』을 살펴보면 게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에서도 여행하거나 새 옷을 입는 것이 길하다고 되어 있다. 즉, 『투시의 택일』은 『별들의 입구』가 제시한 수많은 ‘길흉을 가늠하는 천문 징조’ 중에, 달이 황도 12궁 중에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된 징조만 주로 반영한 것이다.

정리하면 특정 행위가 길한지 흉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천문 징조는 여러 가지이며, 『투시의 택일』처럼 단순히 달의 위치만 가지고 가늠하는 방식은 선택점성술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의 내용만을 포함하는데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단계의 점성술이라 할 수 있다.<sup>55</sup>

55 데이비드 핑그리는 ‘택일’에 관한 *Encyclopaedia Iranica*의 소개글에서 ‘택일’(Ikhtiyārāt)

### 3.2. 나시르 앳딘 투시는 점성술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1절에서 『투시의 택일』의 내용 및 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시는 실제로 나시르 앳딘 투시가 지은 시일까? 이 작품은 그 자체로 점성술 이론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문학적으로 뛰어난 마스나비라고 칭송받을 만한 작품도 아니며, 이슬람권의 크고 작은 사료보관소에 소장된 점성술 및 미래 예측에 관한 술한 작품 중 하나이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이 작품의 저자가 이슬람권의 불세출의 천문학자인 나시르 앳딘 투시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사본 카탈로그에 수록한 이슬람권 안팎의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투시의 택일』을 나시르 앳딘 투시의 것, 혹은 나시르 앳딘 투시의 것이라 ‘여겨지는 것’(attribute to)이라고 기록했다. 예를 들어 이란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는 이 작품의 저자를 ‘나시르 앳딘 투시’라고 기록했지만, 이는 이 작품의 많은 사본이 제목에 나시르 앳딘 투시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카탈로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탈로그를 정리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별들의 입구』에 관해 연구한 이란 학자 라힘 리자자다 말라크(Rahim Rizāzāda Malak)의 경우, 이란의 옛 학자 사이드 나피시(Sa'īd Nafīsi)가 이 저작을 호자 나시르 투시와 연결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이 관점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확인한 현존 제일 오래된 사본(12번)

---

방법에는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는 천체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특정 활동마다 한 달 30일 중에 언제가 길한지, 혹은 흉한지 메소포타미아 혹은 페르시아 고대 전통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이에 따라 택일하는 것, 두 번째는 인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달의 28~36개 저택(Manzil) 중에 어디에 있을 때 특정 활동의 길흉을 정하는 것, 세 번째는 달이 12궁 중 각각에 있을 때 특정 활동을 하면 좋은지 아닌지 살펴 택일하는 것, 마지막으로 질문 시점의 천궁도를 이용하여 질문한 특정 활동의 길흉을 파악하는 것이다[David Pingree (1998, Online update 2011), “Ektiarat”, *Encyclopaedia Iranica* VIII-3, 2025.1.19.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ektiarat>]. 본문에서 살펴본 『투시의 택일』과 『별들의 입구』는 모두 세 번째에 해당하지만, 그중 『투시의 택일』은 천문관측이나 수학적 이론, 천궁도 등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에 마지막 행에 'Fakhr'라는 서명(Mukhlās)가 포함되어 있어 구르조의 시인이자 관료였던 파흐르 무바라샤 구리의 저서로 추측되기 때문이었다. 다만 그 행은 다른 사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페르시아 문학에 관한 전무후무한 사본 카탈로그를 작성한 찰스 스토리의 경우 이 사본을 나시르 앳딘 투시의 작품 목록에서 다루었으나, 같은 목록에서 『별들의 입구』를 함께 다루면서 이를 '저자 미상'이라고 못 박았으므로, 『투시의 택일』또한 투시의 작품이라고 확언한 것은 아니다.

이 시가 나시르 앳딘 투시의 것인가 아닌가는 결국 나시르 앳딘 투시가 점성술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판단할 문제다. 우선 점성술과 관련된 투시의 여러 일화를 살펴보면, 투시가 점성술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아래의 일화를 살펴보자.

투시가 천문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홀레구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홀레구가 말했다. “별들에 관한 이 학문은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투시가 말했다. “제가 폐하께 (이야기로) 예를 들겠습니다. 칸게서 누군가에게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위에서 구리 대야를 아무도 모르게 던지게 명하십니다. 그가 던졌고, (대야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굉음이 나, 그곳에 있던 모두가 겁에 질리고 일부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폐하 두 분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선 투시가 말했다. “별들에 관한 이 학문은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화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알지 못하는 이와 달리 겁에 질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홀레구가 말했다. “그렇다면 괜찮다.” 그러고는 투시에게 계속 연구할 것을 명하니, 그렇게 되었다.<sup>56</sup>

56 Muḥammad b. Shākir al-Kutubī (1974), *Fawāt al-Wafayāt wa al-Dhīl 'Alayhā* 3 (Ed. by

이는 맘룩술탄국의 전기작가 알 쿠투비(al-Kutubi)의 합동전기, 『부고 너머로』(*Fawāt al-Wafayāt*) 속의 내용으로, 나시르 앳딘 투시가 천문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해 약간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알 쿠투비는 나시르 앳딘 투시가 천문대의 주된 역할을 점성술이라 여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지 살리바는 이 일화를 제시하며 투시가 프톨레미와 같은 입장에서 미래의 사건을 방지하거나 피할 수는 없어도 경고를 받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이는 곧 투시가 점성술의 효용성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비록 미래의 사건을 방지할 수 없다고는 하나, 미래의 예측을 통해 경고를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거나 대비하는 것 자체가 점성술의 효용성이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미 비판의 소지가 있으며, 더욱이 미래를 바꾸는 것은 마법의 경지에 해당한다.

이 기록은 알 쿠투비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합동전기를 남긴 알 사파디(al-Şafadi)의 저서에도 반복되는데, 물론 이들이 몽골제국의 적이자 경쟁자였던 맘룩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록을 약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 게다가 맘룩조 지식인들이라면 이스마일리 정권에서 오랫동안 복무했던 나시르 앳딘 투시에게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큰데, 그 선입견은 이스마일리이자 페르시아인인 투시가 유사과학, 특히 점성술에 능하고 그것을 깊이 신봉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세 아랍인 중에는 이란인이란 무조건 점성술에 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또한 이스마일리 종파는 이집트에 파티마조를 세우고 고유의 교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점성술 이론 역시 헬레니즘 철학과 관계가 있다 보니 양자의 이론적 유사성 때문에 이스마일리의 교리가 점성술에 관대하거나, 혹은 점성술에 매몰되어 있다는 극단적인 인식도 존재했다.<sup>57</sup> 일례로 이집트에 천문대를 건설한 최초의 군주로 알려진

---

Dr. Aḥsān 'Abbās), Beirut: Dārşādar, p. 247.

칼리프 알하킴의 점성술사적 면모는 실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mamruk조 사가들에 의해 수십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홀레구 울루스 측의 기록을 볼 때 mamruk조의 기록이 지극히 편향적인 기록만은 아닐 수도 있다. 나시르 앳딘 투시에 관한 일화 중에 점성술과 관련된 내용이 여럿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바그다드 점령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홀레구의 곁에 있었던 점성가 후삼 앳딘 무나짐(Husam al-Din Munajjim)과 의견이 갈렸던 일화나, 아바카 칸(Abaka Khān)의 즉위식을 나시르 앳딘 투시가 택한 날에 치렀던 것, 그리고 투시의 자녀들이 아흐마드 칸(Ahmad Khān)에게 군대 출정에 관해 ‘천문에 지시에 따른다면 상책이 아니’라고 고하였던 일화 등이다.<sup>58</sup> 오히려 천문대 건설에 관련된 일화에서는 점성술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으며, 몽케 칸(Möngke Khan)이 수학과 기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짓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천문대에 근속한 투시와 그의 아들들은 국가의 명운에 관해 천문 관측을 통해 길흉을 점지하는, 중근동에서 가장 오래된 점성술 분야인 ‘정치 점성학’에 의거한 어용 점성가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여기까지의 일화는 주로 외부의 기록이기 때문에, 조지 살리바의 경우에는 나시르 앳딘 투시가 점성술보다는 천문학 이론을 규명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 그는 투시가 천문대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점성술을 군주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셀링 포인트’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sup>59</sup> 그렇다면 점성술에 관한 투시

57 물론 이스마일리의 학자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 지적 활동을 추구하고, 특히 자연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연구에 활발하게 나섰다다는 점은 선입견이라 할 수 없다. 본문에서 11세기 이스마일리 선교사인 나시르 쿠스라우의 사례를 들기도 했지만, 그가 학업을 위해 머물렀던 파티마조의 수도 카이로는 이스마일리 칼리프의 수도였던 10~12세기 동안 제 학문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다.

58 라시드 앳딘(2018), 김호동 역, 『일칸들의 역사』, 사계절, pp. 83-84; p. 153; p. 258.

59 George Saliba (2006), “Horoscopes and Planetary Theory: Ilkhanid Patronage of Astronomers”, *Beyond the Legacy of Genghis Khan* (Ed. by Linda Komaroff), Leiden;

의 관점은 외부의 기록보다는 그 자신의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투시 자신이 작성한 역사서의 기록이다. 나시르 앳딘 투시의 대부분의 기록은 천문학이나 수학, 그리고 이스마일리 교리에 관한 것이며 역사 기록은 남긴 바가 없지만, 홀레구 울루스에서 투시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에게 목숨을 빚지기도 한 아타 말릭 주베이니(Atā Malik Juwaini)의 역사서 『세계정복자사』의 속편을 그가 작성한 바 있다. 그중에 몽케의 즉위식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슬람권의 어떤 연대기 기록보다도 점성가의 역할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약속된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의) 도달함에 망설임이 나타났으며, 회피와 뒤늦음이 중재의 한도를 넘어섰으므로, 그분의 어전에 출석해 있었던 지식인들과 점성가 무리들이 649년 라비 알타니 월(月) 9일을 이와 같은 운명(Tālī)에 의거하여 선택하였다: ‘하늘의 상서로움(Sa’ūd-i Falak)’<sup>60</sup>이 그 상서로움을 기록하는 자였으며, 목성이 그 성운의 동반자였고, 금성이 그 빛을 따라 회전했다. 그리고 나날이 증가하는 행운의 표징 중 하나가 그것이었다 - 그 며칠간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비를 동반하였으며 태양이 구름의 니캅(가림막)과 안개의 히잡 속에 숨겨져 있어, 선택되었던 그 시간을 점성가들이 기다렸지만 구름의 어두움이 광선의 내리쬐음을 막고 있어, 점성가들은 (천구의) 위도(Irtirā)를 잴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의 아름다운 얼굴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돌보고, 이별하고, 방해를 받은 후에야 결혼식이 거행되듯이, 요구된 시간에 니캅을 열었다. 그리고 하늘은 태양의 본체만큼 나타나 안개의 어두움이 약해졌다. 그리하여 점성가들이 위도를 측정하였다. 세계는 빛과 반짝임으로 장식되었고, 그

Boston: Brill, pp. 357-368.

60 행성 중 두 개의 길성인 목성과 금성, 그리고 10개의 다른 항성을 포함한다[Abū al-Faḍl Muṣaḍī (1379Sh./1959-69), *Farhang-i Iṣṭilāḥāt-i Nujūmī*, Tabriz: Intishārāt-i Mu’asisi-yi Tārikh wa Farhang-i Irān, p. 398].

늘과 어두움이 지상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대길성(Sa'd Akbar, 목성)의 단계들의 상승(Tulū'-yi Darajāt)이 하늘의 움직임으로 인해 분명해졌고, 상승점(Awtād-i Tālī)<sup>61</sup>의 힘이 명백해졌으며, 불운의 별(Nahūsāt)<sup>62</sup>들과 하강의 단계(Darajāt-i Muzalama)들이 상서로운 운명으로 인해 가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빛(Nayyar A'zam, 태양)이 10번째 (하우스)의 원지점(Uj)<sup>63</sup>에 섰고, 악마의 별(Qavāṭī)<sup>64</sup>이 12번째 (하우스)에 거주하였다.<sup>65</sup>

이 내용은 뭉케의 즉위식에 관한 내용인데, 인용문의 앞부분처럼 군주의 탄생이나 즉위, 혹은 그의 운명이 전기를 맞이하거나 사망할 때, 해당 시점의 천궁도의 일부를 묘사하는 점성적 서술이 등장하는 것은 페르시아 연대기 역사서에서 특이한 사례는 아니었다. 다만 『세계정복자사』의 원 저자인 주베이니가 점성적 서술을 장황하게 하는 편은 아니었으므로, 투시의 이러한 서술은 본인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뭉케의 즉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점성적 서술을 써서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의 즉위식을 위해 점성가들이 날짜를

61 천궁도에서 지평선을 가르는 축 중에 동쪽에 해당하는 축을 의미한다.

62 행성 중에 두 개의 흉성인 토성과 화성, 그리고 7개의 다른 별들을 포함한다[Abū al-Faḍl Muṣaḍfi (1379Sh./1959-69), p. 788].

63 '원지점'은 지구 중심의 우주관에서 각 천체가 지구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태양의 원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세에 태양의 원지점은 쌍둥이자리였다[Abū al-Faḍl Muṣaḍfi (1379Sh./1959-69), pp. 62-63].

64 영어로 Demon star라는 별칭을 지닌 페르세우스 별자리의 다중별이자 변광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예부터 불길한 별로 알려졌다. 점성술에서는 참수와 관련된 별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별의 이름은 아랍어로 '자르다(Qata')의 파생형이다. 현재에는 이 별이 황소자리에 자리하고 있으나, 세차운동으로 인해 72년마다 1도씩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 별은 점성술에서 마법을 위한 응용에 사용되었던 15개의 항성인 베헤니안 항성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항성이기도 하며, 이 베헤니안 항성을 지정한 것은 앞서 등장한 헤르메스와 연결된다.

65 Atā Malik Juwainī (1958), John Andrew Boyle tr.,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III, Manchester, pp. 29-30.

선정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그날 등극한 군주의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천구의 위도를 측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인용문 중간에 천구의 위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운을 예측하기 위해 그 시점의 하늘 상황을 관측하여 점성술적 의미를 지닌 여러 행성과 항성이 천구상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천궁도 작성의 기본이 된다. 물론 위의 인용문에는 목성이 상승궁에 자리함과 행운의 별 중에 태양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그리고 불운의 별 중에 악마의 별은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도만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기록만 가지고는 몽케의 즉위에 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서술을 통해 점성가들이 몽케의 즉위 시점의 상승궁과 7개의 행성 및 10여 개의 항성 위치에 대해 파악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천궁도를 통해 그 사건의 향후 길흉을 점치는 순간 점성술의 과정을 보여준다.

다만 문제는 몽케의 즉위가 몽골리아 초원의 한복판인 카라코룸(Qara-Qorum)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이미 몽골제국이 중앙아시아에 행상서성(行尙書省)을 파견하고, 서아시아에도 군사를 주둔시킨 지 20년은 된 시점이기는 하지만, 몽케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이슬람식 점성술을 통해 즉위식 날짜를 택일하고, 무슬림 점성가들에게 군주의 운명을 예측하게 했을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몽케가 무슬림 점성가들을 고용하여 길흉을 점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내용이 투시의 개인적인 상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전자라면 이 일화는 말라가 천문대의 유래에 관한 『집사』의 서술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집사』를 시작으로 홀레구 울루스 및 티무르조의 여러 연대기는 말라가 천문대가 건설된 이유를 몽케에게 돌리고 있다. 몽케가 유클리드의 어려운 문제를 풀 정도로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천문대를 건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당시까지 자말 앳딘 알부하리(Jamāl al-Dīn

Bukhari)라는 인물에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겼다. 그러나 그 작업의 결과에 오류가 나타나자, 투시의 명성을 들은 몽케 칸이 원정을 떠나는 홀레구에게 나시르 앳딘 투시를 보내도록 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홀레구가 바그다드 원정을 고민할 때, 그의 곁에 있었던 후삼 앳딘 무나짐이 원정을 반대했으나 투시의 의견에 따라 바그다드 원정을 결정했다는 일화 또한, 몽케가 카라코룸에서도 이슬람 천문학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당시 홀레구 곁에는 ‘박시’라고 불리는 투르크-몽골계 점술가 및 사면이 있었지만 홀레구는 몽케 칸의 명령에 따라 무슬림 점성가인 후삼 앳딘 ‘무나짐(점성가라는 뜻)’을 동행했고, 그는 행군과 숙영에 관해 자문하기 위해 동행하던 ‘측근’으로 묘사되었다. 이 역시 몽케가 무슬림 점성가를 왕자의 곁에 두게 할 정도로 점성술에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인물이 바그다드 원정을 상서롭지 못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점성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으로써 칼리프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에 가까웠다. 그나 부하리 등은 13세기 중반 홀레구 울루스의 이란 원정이 있기 전까지 몽골 정권에서 주로 접할 수 있었던, 중앙아시아 출신의 순니파 무슬림이었다. 반면에 나시르 앳딘 투시는 이란 출신인데다 이스마일리 종파의 추종자이므로 순니파의 칼리프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 맘룩조의 인물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칼리프 조정 내의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그다드 원정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어쨌든 전자의 상황이라면 몽케가 13세기 중반에 이미 중앙아시아 출신 색목인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 과학 및 철학뿐 아니라 점성술까지도 접했고, 점성술사가 카안 울루스의 의례에 일정한 몫을 행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후자라면 몽케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1250년대 카라코룸이 이 정도로 이슬람 점성술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의 인용문은 나시르 앳딘 투시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즉위식을 반영한 장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즉위식에는 점성가의 택일과 군주의

운명 예측 등의 절차가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후자라 할지라도 투시가 점성술을 국가 의례 및 통치 절차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는 학문이라 생각하고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가 『투시의 택일』과 같은 마스나 비를 저술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투시의 택일』의 내용은 뭉케의 즉위식에서 점성가들이 했던 것처럼 군주의 즉위 날의 천궁도를 바탕으로 길흉을 점치는 순간 점성술보다 오히려 신학적인 비판을 덜 받을 만한 수준의 점성술이며, 당시에 시아파 내에서는 ‘전갈자리의 달’과 같은 선택 점성술 내용이 여러 종교인의 법적 논의를 통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시르 앳딘 투시의 점성술에 대한 지식과 관점은 그가 가진 순수한 자연과학적 지식, 즉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획득할 수 있는 두 마리 물고기라고 볼 수 있다. 나시르 앳딘 투시의 천문대와 관련된 기록 중에 유독 30년의 운영을 강조하는 기록이 등장하곤 한다.

건설의 시작을 657년에 말라가에서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천문대 이전에 이루어진 관측은 바르자스(Barjas) 천문대에 의존한 것이며 1400년 전이었다. 그리고 프톨레미의 천문대, 그 후에 이슬람 시대에 바그다드의 알마문 천문대였는데 그것은 430년 동안, 알바나니(al-Banāni) 천문대가 시리아 지역에, 그리고 이집트의 알하킴 천문대, 그리고 바그다드에 바누 알알람(Banū al-A'lam) 천문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250년(동안 있었다). 옛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곱 행성에 대한 관측은 30년 이내에 완료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 일곱 행성의 회전이 완료되는 때이기 때문이다.” 훌레구가 말하기를, 노력하여 이 천문대에서 그 일곱 행성의 관측을 12년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하라고 했다.<sup>66</sup>

66 Muḥammad b. Shākir al-Kutubī (1974), p. 251.

조지 살리바는 나시르 앳딘 투시가 대외적으로는 점성술의 발전을 위해 천문대의 30년 운영을 강조했지만, 실제 의도는 천문대를 장기간 유지하여 학자들이 안정적인 재정 기반 속에서 순수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점성술의 기본은 일곱 행성의 위치인데, 가장 멀리 자리한 토성의 공전 주기가 약 30년 남짓이기 때문에 모든 행성의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은 소요된다고 후원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천궁도를 정확히 그리는 것과, 순수 천문학 분야 중에 투시와 그의 동료들이 관심을 가졌던 프톨레미의 주전원 모델의 오류를 확인하고 새로운 천체 모델을 고안하는 행성 이론 연구는 똑같이 행성의 위치 변화에 관한 정확한 관측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슬람권의 수백 개에 달하는 천문표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중에 중요한 몇몇 천문표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에드워드 케네디(E. S. Kennedy)는 천문표에 포함된 공통 내용 중에 ‘점성술적 표’라는 항목을 소개하면서, 해당 항목이 본래 천문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로 점성술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sup>67</sup> 그러므로 나시르 앳딘 투시는 행성에 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자신과 동료 학자들의 행성 이론을 발전시키는 한편, 점성술 분야에서도 그 이론을 다소간 이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전근대 여러 무슬림 학자는 진술했듯이 점성술을 순수과학이론인 천문학의 ‘실천’ 이론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투시의 택일』은 순수 과학이론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저명한 천문학자가, 누가 봐도 점성술 저작이 분명해 보이는 작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나시르 앳딘 투시에게는 다른 오컬트 과학과 관련된 저작도 있다. 그것은 유사 프톨레미의 작품으로 알려진 『카르푸스』(*Karpos*)의 번역서 『열매의 책』(*Kitāb al-Thamara/Centiloquium*)과, 『어깨뼈 짐술』(*Shāna-*

67 E. S. Kennedy (1956), "A Survey of Islamic Astronomical Table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46-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 144.

*bīnī*)이라는 저서이다.

첫 번째 작품은 본래 프톨레미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프란츠 볼(F. Boll)이 189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프톨레미의 실제 책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책은 그리스의 원서는 없고, 다만 아랍어본과 라틴어 번역본, 그리고 그리스 번역본이 남아있다. 가장 이른 현존 작품은 10세기 파티마조의 역사가 아부 자파르 아흐마드 이븐 유수프(Abū Ja'far Ahmad Ibn Yūsuf)의 본문과 주석서이며, 일부 학자는 사실상 아부 자파르가 이 책을 저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sup>68</sup> 유럽에서도 이 책을 프톨레미의 저서로 생각하여 12세기 초부터 아부 자파르의 작품을 저본으로 한 번역본이 여러 시대에 걸쳐 등장하며,<sup>69</sup> 프톨레미의 실제 점성술 저작인 『테트라비블로스』 못지않게 이슬람권 및 유럽에 널리 확산되었다. 다만 유럽에서는 이집트 출신이었던 아부 자파르의 저작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이슬람권 동부에서도 프톨레미의 저술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한 번역과 주석서 제작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시르 앳딘 투시의 번역서였다. 이 책은 프톨레미가 이야기했다고 일컬어진 100가지의 점성술 관련 아랍어 경구(Verba)를 제시하고, 그 아래 페르시아어로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이 책의 사본 콜로폰 중에 가장 이른 것은 이슬람력 663년(1265년)에 말라가에서 완성된 것으로, 바하 앳딘 이븐 샴스 앳딘(Bahā al-Dīn Ibn Shams al-Dīn)이라는 인물의 요청을 받아 저술되었다. 이후 13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대에 필사된 사본이 전 세계에 약 150여 권 존재한다.<sup>70</sup>

이 책은 나시르 앳딘 투시의 점성술에 관한 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68 David Juste (2023), "Pseudo-Ptolemy, Karpos / Kitāb al-Thamara (Greek / Arabic)". *Ptolemaeus Arabus et Latinus*, 2025.1.19. <http://ptolemaeus.badw.de/work/24>.

69 Jean-Patrice Boudet (2020), "The Medieval Latin Versions of Pseudo-Ptolemy's Centiloquium: A Survey", *Ptolemy's Science of the Stars in the Middle Ages* (Eds. by David Juste 外), Brepols Publishers n.v., p. 284.

70 Charles Ambrose Storey (2021), No. 70-(1).

인 책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장에서 투시는 ‘발생과 부패의 세계’(alam-i Kūn wa Fasād)<sup>71</sup>가 발전(Mutajaddad)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힘을 연구하는 학자(Mūjad, Fā il)가 발전의 대상인 세계(Mawdū', Qābil) 자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발전의 조건(Shart)인 별의 상태를 알고 그것의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건이 없이는 발전이라는 상황도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점성술의 효용성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데, 정리하면 세계 발전의 필요조건이 별의 상태나 영향, 효과 등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발전의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현대의 천문학에서 다루는 천체의 상태이지만, 다른 하나는 천체의 영향이나 효과를 의미한다. 전자에 관한 정보는 확실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으나 후자는 경험이나 귀납적 방식으로나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72</sup> 이것은 세계의 발전에 있어서 천체가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가 필요조건이며, 심지어 발전의 대상인 세계에 대한 지식보다 천체의 상태와 그 영향에 대한 지식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시르 앳딘 투시는 천체의 상태가 영감이나 계시, 예언, 올바른 꿈과 같은 반열에 있다고 여겼다. 이는 현대인에게는 미신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중세 이슬람 철학에 의거하여 사유했던 일부 학자에게는 세계 발전의 선행 조건이었다.<sup>73</sup>

나시르 앳딘 투시의 이 책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여파로 본다면 현대까지 이어지는 페

71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논문명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것으로, 페르시아어에서 는 이승을 뜻하는 관용구가 됨.

72 나시르 앳딘 투시는 발전의 조건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가 프톨레미 이론의 오류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했던 것은 별의 상태(움직임)에 관한 것이며, 점성술은 별의 영향, 효과에 관한 학문이므로 양자가 같은 인물의 이론이라 하더라도 전자의 오류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73 Khwāja Naṣīr al-Dīn Ṭūsī (1400Sh./2021), *Sharḥ Thamara baṭalmiyūs - dar Ahkām-i Nujūm* (Ed. by Jalil Ikhwān Zanjāni), *Mirāth Maqtūb*, pp. 3-4.

르시아-이슬람권에서의 ‘철학적 오컬트 과학’의 발전을 대변하는 책이다. 1장의 말미에 10세기 이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이 각자의 학문 이론을 배경으로 삼아 점성술을 비판했음을 설명했는데, 점성가들, 혹은 점술 방식을 옹호하는 이들 역시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신플라톤주의와 신피타고라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신플라톤주의가 이 점성가들에게 미친 영향은 만물을 둘러싼 ‘존재의 사슬’(Chain of Being)이다. 이것이 전술한 헤르메스주의에 의거하여 윗사슬과 아랫사슬이 서로 상응(Munāsiba)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시가 언급한 것처럼 천구에 자리한 별의 상태가 인간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관념이다. 한편 신피타고라스주의의 영향은 숫자의 신비적 속성에 주목하여 숫자만이 인간의 지성을 기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보는 관점이다.<sup>74</sup> 즉, 수학이 세계를 아우르는 원칙을 다루는 학문이고, 귀납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여타 자연과학보다 상위의 학문이라는 것이다. 중세 이슬람에서 성행했던 여타 오컬트 과학 중에 수학을 중시하는 경향은 문자주의(Lettrism)나 모래점(Geomancy) 등에서 부각되지만, 점성학 역시 15~16세기 무렵 고급 수학으로 그들의 이론을 무장한다.<sup>75</sup> 그리고 점성학과 그 모체 학문인 천문학에 강한 수학성을 부여한 인물이 바로 나시르 앳딘 투시와 그가 만든 천문대의 여러 학자였다. 말라가 천문대나, 그곳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티무르조의 울룩벵 천문대 학자들은 과거의 천문학자들이 천체를 관찰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하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원칙을 찾아내는 것에 더욱 집중했다. 그러므로 반(反)오컬트 과학 논

74 Matthew Melvin-Koushki (2018), “Persianate Geomancy from Tūsī to the Millennium: A Preliminary Survey,” *The Occult Sciences in Pre-Modern Islamic Cultures* (Eds. by Nader El-Bizri and Eva Orthmann), Beirut: Ergon Verlag Wurzburg in Kommission, pp. 186–187.

75 Matthew Melvin-Koushki (2017), “Powers of One: The Mathematicalization of the Occult Sciences in the High Persianate Tradition,” *Intellectual History of the Islamicate World* 5-1, Brill, pp. 128–137.

의를 폈던 올라마이자 철학자, 이븐 카임 알자우지야(Ibn Qāyīm al-Jawziyya)는 나시르 앳딘 투시에 대해 “당대에 타락한 지식인의 전형, 이슬람의 대(大)파괴자, 철학-천문가로 후원받는 점성가, 박물학자이자 마법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sup>76</sup> 이는 나시르 앳딘 투시가 당시에 오컬트 과학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반오컬트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오컬트 과학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전술한 『어깨뼈 점술』이라는 글이다. 이 글은 양의 어깨뼈를 이용하여 점을 치는 방식에 관한 짧은 논문으로, 현재 이란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어깨뼈 점술’로 검색해 보면 두 종류의 사본이 등장한다. 그중에 일부는 12세기에 활약한 이슬람 철학자 파크르 앳딘 라지(Fakhr al-Din Rāzi)의 저작 『학문이라는 루비와 별이라는 진주』(*Yawāqūt al-'Ulūm wa-Darārī al-Nujūm*)의 일부라는 명시와 더불어 시작되는 사본이다.<sup>77</sup>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은 『투시의 택일』과 마찬가지로 이견 없이 나시르 앳딘 투시를 저자로 지목한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학자 투시로부터’(Aj Muḥaqq-i Tūsi)라는 표현이 여러 사본에 보이기 때문이다.<sup>78</sup>

이 방식의 점술에 대해 연구한 이란의 나르기스 사디키 구야(Narghis Sādiqi Ghūyā)에 의하면, ‘어깨뼈 점술’에 관한 10세기의 저서에서는 이 점술이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소급된다고 한다. 전술한 파크르 앳딘 라지의 사본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이 등장한다. 또한 일부의 기록에서는 이맘 알리에서 유래한 방식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점술은 이슬람권 내의 여러 투르크-몽골계 주민들 사이에서 유래한 방식이

76 Matthew Melvin-Koushki (2017), p. 129.

77 테헤란 대학교 도서관(<https://aghabozorg.ketab.ir>)에 소장되어 있다(분류번호: 46820).

78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개의 이란 의회도서관 사본을 살펴보면, 의회도서관 15232(41) 사본(17세기)은 해당 논문을 소개하는 목차에 ‘학자 투시로부터’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3115(17) 사본(19세기)에는 제목에 비스밀라 이후 ‘Lil-Muḥaqq-i Tūsi’라는 유사한 표현이 있다. 아랍어본과 번역된 페르시아본이 있지만 모두 투시로 소급된다.

라고 하는데,<sup>79</sup> 여기에서 나시르 앳딘 투시와의 접점이 양측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10세기 무렵 시아파 이스마일리 교파의 전통에서 나타난 여러 점술 중 하나였을 가능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몽골의 전통적 점술 방식이 나시르 앳딘 투시에게 전해져 이슬람 전통으로 윤색되었을 가능성이다. 물론 이 사본이 실제 투시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고, 언뜻 보기에는 유목적 전통을 지닌 외래의 점술 방식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이슬람권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된 뼈 유물에 예외 없이 아랍문자가 적혀있는 점을 보면 ‘어깨뼈 점술’ 역시 신피타고라스적 철학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랍문자는 숫자와 대응되어 숫자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본이 실제로 투시의 저작이 아니더라도 오컬트 과학을 지지하는 중세 이슬람 학자들 및 대중들이 나시르 앳딘 투시를 오컬트 과학의 초기 거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은 나시르 앳딘 투시의 것으로 알려진 36행의 택일 점성술 시가 과연 투시의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성술의 성립과 발전, 특히 점성술 이론의 구축과 그에 대한 반박의 상호작용을 검토한 후, 나시르 투시의 일화 및 그의 작품을 분석하여 점성술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2장에서는 투시 이전의 점성술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슬람 성립 직후부터 중근동의 여러 고대 문화의 전통을 조합하여 생겨난 이슬람 점성술은 이슬람 법학자와 철학자의 비판을 받았는데, 양자의 비판의 초점은 달랐으며 점성술은 이 비판을 면하기 위해 종교적인 윤색과 종교적 금기를

79 Narghis Šādiqī Ghūyā (2021), “Shāna-bini”. *The Center for the Great Islamic Encyclopaedia*. 2025.1.19. <https://www.cgie.org.ir/fa/article/257840/%D8%B4%D8%A7%D9%86%D9%87%E2%80%8C%D8%A8%DB%8C%D9%86%DB%8C>.

우회하는 동시에, 철학자들의 이론적 배경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과 자연과학을 이용하여 보다 세련된 점성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물론 그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10세기 이후로는 점성술 이론의 발전은 멈추었으나 그것에 반박하는 다분야의 지식인은 그들의 논리를 발전시켰다. 그 지식인 중에 기왕의 그리스 천문학 이론을 개선하려 노력했던 것이 투시를 비롯한 말라가 천문대의 천문학자들이었으므로, 투시 역시 점성술에 긍정적이지 않았으리라는 기왕의 분석도 있었다.

3장에서는 나시르 앳딘 투시의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투시의 택일』 사본을 분석하는 동시에, 점성술에 관한 그의 입장을 보여주는 일화 및 그 자신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나시르 앳딘 투시는 지상에 대한 천체의 영향력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숫자를 신비한 존재이자 세계의 원칙으로 바라보는 신피타고라스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 천문학 이론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수학적 이론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수학에 대한 그의 시각을 반영한다.

신피타고라스주의는 오컬트 과학은 물론, 또 다른 신비주의와 결합했는데, 그것은 이븐 아라비가 내세운 이후 주요 수피교단에서 채택하여 결국 성자숭배 신앙으로 발전했던 ‘신의 벗’(Wali, 복수로는 Awliya) 이론이다. 신의 벗이 가진 고귀한 특징 중 하나가 기적(마법)과 같은 초인적인 능력인데, 이 초인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대체로 오컬트 과학이었고, 당시에 유행했던 여러 오컬트 과학은 수학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오컬트 과학은 신의 벗뿐 아니라 엘리트 무슬림의 필수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sup>80</sup> 이 시기에 점성술을 비롯하여 문자주의, 모래점, 마방진, 어깨보기 등 현재 이슬람권의 여러 사료보관소에 잠들어 있는 갖가지 방식의 오컬트 과학 관련 서적은 이러한 전근대 이슬람권의 사상적 배경에서 작성되

80 Matthew Melvin-Koushki (2017), p. 130.

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라시드 앳딘(2018), 김호동 역, 『일칸들의 역사』, 사계절.

이븐 할둔(2003), 김호동 역, 『역사서설』, 까치.

Quran.

Hadith.

Khusraw, Naṣīr (2001), Wheeler M. Thackston tr., *Nasir-i Khusraw's Book of Travels*, Mazda Publishers.

al-Kulaynī (1984), *al-Kāfī* 8, Tehran: Dar al-Kutub al-Islamiyya.

al-Kutubī, Muḥammad b. Shākir (1974), *Fawāt al-Wafayāt wa al-Dhīl 'Alayhā* 3 (Ed. by Dr. Aḥsān 'Abbās), Beirut: Dārṣādar.

Juwainī, Aṭā Malik (1958), John Andrew Boyle tr., *The History of the World Conqueror* III, Manchester.

al-Muḥaqqāq al-ḥilī (1409AH/1988-9), *Harāī 'al-Islām fī Masā'il al-ḥalāl wa al-ḥarām* 3, Tehran: Munshūrāt-i Istaqlāl.

Tūsī, Khwāja Naṣīr al-Dīn (1400Sh./2021), *Sharḥ Thamara baṭalmiyūs - dar Aḥkām-i Nujūm*, (Ed. by Jalil Ikhwān Zanjānī), Mīrāth Maqtūb.

Yazdī, Sharaf al-Dīn 'Alī (1387 Sh./2008-9), *Zafar nāma* (Ed. by Sayyid S'aid Mīr Muḥammad Ṣādiq), Tehran: Markaz-i Asnād Majlis.

### 논저

Anonymous (1384Sh./2005-6), *Tanklūshā* (Ed. by Raḥīm Rizāzāda Malak), Tehran: Mīrāth Maktūb.

Blochot, E. (1912), *Catalogue des manuscrits persans de la Bibliotheque nationale* 2, Paris: E. Leroux.

Boudet, Jean-Patrice (2020), "The Medieval Latin Versions of Pseudo-Ptolemy's Centiloquium: A Survey", *Ptolemy's Science of the Stars in the Middle Ages* (eds. by David Juste et al.), Brepols Publishers n.v.

Dykes, Benjamin N. (2008), *Works of Sahl & Māshā'allā*, Cazimi Press.

Ebeling, Florian (2019), David Lorton tr., *The Secret History of Hermes Trismegistus: Hermeticism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Ithaca;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Ghūyā, Narghis Ṣādiqī (2021), “Shāna-bīni”, *The Center for the Great Islamic Encyclopaedia*, 2025.1.19. <https://www.cgie.org.ir/fa/article/257840/%D8%B4%D8%A7%D9%86%D9%87%E2%80%8C%D8%A8%DB%8C%D9%86%DB%8C>.
- Halm, Heinz (1997), *The Fatimids and their Traditions of Learning*, New York; London: I. B. Tauris Publishers.
- Juste, David (2023), “Pseudo-Ptolemy, Karpos / Kitāb al-Thamara (Greek / Arabic)”. *Ptolemaeus Arabus et Latinus*, 2025.1.19. <http://ptolemaeus.badw.de/work/24>.
- Kennedy, E. S. (1956), “A Survey of Islamic Astronomical Tables”,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46-2,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Lane, George E. (2018), “ṬUSI, NAṢIR-AL-DIN”, *Encyclopædia Iranica*, online edition, 2025.5.17. <http://www.iranicaonline.org/articles/tusi-nasir-al-din-bio>
- Lawrence, Marilyn, “Hellenistic Astrology”,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25.1.19. <https://iep.utm.edu/hellenistic-astrology/#H7>
- Lemay, Richard Joseph (1962), *Abu Ma'shar and Latin Aristotelianism in the Twelfth Century: The Recovery of Aristotle's Natural Philosophy Through Arabic Astrology*, Beirut: Catholic Press.
- Melvin-Koushki, Matthew (2017), “Powers of One: The Mathematicalization of the Occult Sciences in the High Persianate Tradition”, *Intellectual History of the Islamicate World* 5-1, Brill.
- Melvin-Koushki, Matthew (2018), “Persianate Geomancy from Ṭūsī to the Millennium: A Preliminary Survey”, *The Occult Sciences in Pre-Modern Islamic Cultures* (eds. by Nader El-Bizri and Eva Orthmann), Beirut: Ergon Verlag Wurzburg in Kommission.
- Michot, Yahya J. (2000), “Ibn Taymiyya on Astrology Annotated Translation of Three Fatwas”, *Journal of Islamic Studies* 11-2.
- Muṣaḩī, Abū al-Faḩl (1379Sh./1959-69), *Farhang-i Iṣṩilāḩāt-i Nujūmi*, Tabriz: Intishārāt-i Mu'sisi-yi Tārīkh wa Farhang-i Irān.
- Pingree, David (1998, Online update 2011), “Ektiarat”, *Encyclopaedia Iranica* VIII-3, 2025.1.19.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ektiarat>
- Pingree, David (1990), “Astrology”, *The Cambridge History of Arabic Literature: Religion, Learning, and Science in the Abbasid Period* (Ed. by M. J. L. Young et 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f, Laina (2015), *The Arabic Influences on Early Modern Occult Philosophy*, Palgrave Macmillan.
- Saif, Liana 外 eds. (2020), *Islamicate Occult Sciences in Theory and Practice*, Leiden; Boston: Brill.
- Saliba, George (1995), *A History of Arabic Astronomy: Planetary Theories During the*

*Golden Age of Islam*, NYU Press

- Saliba, George (2006), "Horoscopes and Planetary Theory: Ilkhanid Patronage of Astronomers", *Beyond the Legacy of Genghis Khan* (Ed. by Linda Komaroff), Leiden; Boston: Brill.
- Savage-Smith, Emilie Ed. (2004), *Magic and Divination in Early Islam*, Ashgate Publishing Limited.
- Sayili, Aydin (1988), *The Observatory in islam And its place in the General*, Türk Tarih Kurumu Basimevi.
- Storey, Charles Ambrose (2021), "3. Astronomy and Astrology", *Persian Literature: A Bio-bibliographical Survey 2 - Mathematics; Weights, and Measures; Astronomy, and Astrology; Geography; Medicine; Encyclopaedias, and Miscellanies; Arts and Crafts, Science, Occult Arts*, Brill, 2025.1.19. <https://referenceworks.brill.com/display/entries/SPLO/COM-20300000.xml>
- Ṭabāṭabāī, Sayyid Muḥammad Ḥusayn (1374Sh./1995-6), *Tarjuma-yi Tafṣīr al-Mizān* 19, Qum: Daftar-i Intishārāt-i Islāmī.
- Walker, Paul E., (2009), *Caliph of Cairo - al-Hakim bi-Amr Allah, 996-1021*, Cairo; New York: The America University in Cairo Press.
- "IO Islamic 3786 (Oriental Manuscripts, British Library)", *Fihrist - Union Catalogue of Manuscripts from the Islamicate World*, 2025.1.19. [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17914](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17914).
- "MS. Bodl. Or. 413 (Bodleian Library, Oxford University)", *Fihrist - Union Catalogue of Manuscripts from the Islamicate World*, 2025.1.19. [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22894](https://www.fihrist.org.uk/catalog/manuscript_22894).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5월 9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9일

## ABSTRACT

# Naṣīr al-Dīn Ṭūsī and the Occult Sciences

Lee, Juye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trological poem, *Ikhtiyārāt* and its surviving manuscripts which are said to have been written by Naṣīr al-Dīn Ṭūsī, a prominent astronomer in the Islamic world in the 13th century,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Ṭūsī and astrology in light of the historical record and the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context of his time.

Islamic astrology inherited the traditions of the ancient civilizations of the Middle East and surrounding regions that preceded Islam. But it was criticized by Islamic jurists and philosophers during the classical period. Moreover, during Tusi's lifetime, an anti-occult movement arose in the Islamic world as high-level and popular patronage of the occult sciences overwhelmed jurisprudence and philosophy. Ṭūsī was seen by the anti-occultists as the epitome of an occultist intellectual, as he was an advocate of the occult sciences, writing several books on astrology and other occult subjects such as shoulder reading and sand divination.

**Keywords** Occult Science, Astrology, Naṣīr al-Dīn Ṭūsī, Choosing an Auspicious Day (*Ikhtiyārāt*), Hellenistic Philosophy, Corresponding (Munāsiba)

---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